

한 해를 되짚어보며... 연말 전시회 다채

이달말까지 제주 민중예술·지역 교류전 등 회화, 영상, 금속공예 등 다양한 작품 선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도내 곳곳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회가 한창이다.

▶스튜디오126=올해 스튜디오126(제주시 관덕로 14-4)의 마지막을 채우는 전시는 지역 교류전 '나의 어제는 당신의 오늘'이다. 파주의 아트스페이스 휴가 기획하고 스튜디오126이 후원하는 협력 전시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휴+네트워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아트스페이스 휴 전시 참여 작가 중 7명의 작가(김창영, 박광선, 사박, 안준영, 윤상윤, 조민아, 정철규)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기간은 이달 31일까지. 회화·영상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포지션제주=(사)제주민예총이 4·3항쟁 74주년 29회 4·3예술축전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마지막 여정으로 4·3 예술아카이브 프로젝트 4 '민중의 이름으로 피어난 저항 예술' 전시를 이달 31일까지 포지션

민제주(제주시 관덕로 6길17)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6월항쟁은 4·3 기억투쟁으로 ▷해군기지 건설반대 ▷촛불혁명까지 제주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해온 예술운동과 제주 개발에 저항해온 문학·미술·연극 등 자주적 제주공동체의 정신을 예술의 언어로 말해 왔던 '저항의 예술'을 조명하고 있다.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아트스페이스 빈공간(제주시 관덕로 3길15)에선 다가올 재난을 경고하듯 '재앙의 조각들' 연작을 그리는 김승민 작가의 개인전 '우연히 마주한 불길'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가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 최근까지의 고민과 연구인 환경 문제를 재난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장해 자연재해, 사고, 전쟁 등 다양한 내용을 회화 작품 20점으로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심헌갤러리=제주금속공예가회의 네 번째 그룹전이 진행중이다.



조민아 작 '반사' (왼쪽 위)
김승민 작 '양과 나' (오른쪽 위)
이창열 작 '꽃 피어나다'

회원들은 "현재, 제주에서 금속을 다루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금속공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에 힘입어 제주만

의 정서를 담은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과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다. 오은지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65)

제주에 종일 내리는 눈

거의 하루 내내 눈이 왔다. 그리고 나는 창가에 앉아 종일 밀린 원고를 썼다. 눈은 이미 간밤에 쌓일 만큼 쌓여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 마당에 가득했다. 이럴 때 핸드폰을 들고 마당에 나가 눈 사진을 찍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오른쪽으로 이웃한 말 목장에 말들이 나와 있다. 눈발을 밟고 큰 움직임 없이 몽그적거리며 서 있는 말들이 위로 눈이 내리고, 나는 연필을 입에 문 채 흰 종이 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시 몇 편을 두고 몽그적댄다. 나는 수정된 시를 종이에 다시 옮겨 쓴 다음 가능한 시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눈은 잠시 멎는 듯 했지만 갑자기 사위(四圍)가 어두워지며 눈보라로 몰아친다.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마저 지우고 눈은 시야 가득 눈송이를 뿌려대며 남에서 북으로 지나간다. 말들도 또한 눈을 피해 어느새 자리를 옮기고 목장은 텅 빈 하얀 웅덩이처럼 가라앉았다. 마치 거친 무늬를 새기는 누군가가 점토 판에 흙을 짓기 시작한 것처럼 공중은 한 장의 화폭이 되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나를 아득한 회상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은 따리를 들고 무언가 풀어내지 못하는 말을 붙들고 앉아 있다. 그 언어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눈이 그치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사유는 궤적의 흔적을 이리저리 남기며 쓰였다

지워지고 다시 쓰인다. 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들어 창밖의 동백나무 울타리를 비추자 그 틈으로 농부의 집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바뀌어 연기는 북에서 남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 그 너머 풍력발전기들이 가늘디가늘 선으로 나타나고 흐린 바다가 수평선 위에 하얀 색 대기를 띠처럼 두르며 그 위로 희색 하늘은 구름들을 데리고 무겁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한바탕 짜락눈이 쏟아지며 뒷마당을 구르고 동백나무 잎사귀를 때리며 보석처럼 굴러떨어지는 것이 꼭 탄 세상 같다. 마치 시 같은 것을 끄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열빠진 수작 마라는 듯이.

그래도 나는 흰 종이에 뭔가를 쓰다 지운다. 알 듯 모를 듯한 세계와 풍경들의 체험인 이 시간에 나는 내가 미처 모르는 '나'와 마주 앉아 있는 셈인데 모호하지만 알 수 있는 것, 불가사의하지만 분명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꾸지나무나 닳나무 속껍질을 푼고 두들기고 말려서 만든 종이처럼 종이 위에서 내 생각은 들뜨고 찢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진다. 강한 바람에 남쪽으로 쏠린 먼 나뭇잎과 담팔수의 줄기들이 연못을 가릴 만한 몸체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무들은 새처럼 바람을 타며 공중에 떠 있다. 제주에서 거의 하루 종일 내리는 눈을 보기에 쉽지 않다. 제주를 그 자체로 참 이색적인 주제를 이리저리 남기며 쓰였다

<시인>

기록되지 못했던 제주여성 4·3의 기억 공유

제주여성회 22일 포럼
구술채록 성과 등 발표

제주여성회가 이달 22일 제주 4·3을 겪은 여성들에 대한 여성주의 구술 채록 결과물을 공유하는 포럼 '2022 제주여성, 4·3의 기억'을 개최한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 구술 채록 작업을 해온 제주여성회의 '4·3과 여성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다.

제주여성회는 구술 채록을 통해 언제나 객체로, 희생자의 위치로만 한정됐던 여성들의 이야기, 아직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기록했다.

이번 포럼은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여성주의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 4·3과여성위원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작업해온 구술채록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준비돼 있다.

4·3과여성위원회는 마을을 중심으로 구술 채록해 마을이 겪은 4·3까지 들여다보는 '마을팀', 세 어르신을 여러번 구술 채록해 삶의 내면을 면밀히 관찰하는 '삼삼팀', 생존자 어르신과 그의 자녀, 손자 등 4·3 직후 세대까지 구술 채록해 4·3이 한 가정에 흘려갔던 모습을 다루는 '직후팀'으로 나뉘어 구술 채록을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진행한 총 134회, 어르신 76분의 구술채록을 쌓아온 세 팀의 팀장(김오순 삼삼팀 팀장, 김영순 마을팀 팀장, 강은미 직후팀 전 팀장)이 전하는 5년 간의 여성주의 구술 채록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을 수 있다.

이어 여성주의 구술채록의 의의와 제주4·3 여성 연구의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제주시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참여 신청은 다음 링크(www.bit.ly/제주43여성구술포럼) 혹은 전화(064-756-7261)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마을과 학교가 함께
크리스마스 추억 선사"

표선윈드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이달 25일 오후 7시30분 제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표선윈드오케스트라와 표선고등학교가 협약을 맺고 처음으로 갖는 공동 연주회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연주자들은 '팡파레 더 커몬맨'을 오프닝으로 크리스마스 곡들을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표선윈드오케스트라 강은 씨가 지휘봉을 잡고, 표선고 윤정택 교사가 객원 지휘로 참여한다.

또 이날 '혼디' 그룹 사운드(정소년)의 로비 공연(오후 7시)도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추사관 '추사와 벗들'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

제주추사관에서 '추사와 벗들'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시장은 제주추사관 명예관장 유홍준 교수가 기증한 '삼각산 기행시축'을 비롯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수 축 훈

국민훈장 모란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커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용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장
JIBS 제주방송 대표이사

명 량

수 축 훈

국민훈장 모란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커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용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장
JIBS 제주방송 대표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제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일동